

시론

AI 소라(Sora)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진호림 (주)리얼프로텍 대표이사

영상물 제작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촬영과 편집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된다. 보통은 촬영에만 30분짜리 테이프 30개 이상을 사용했다. 1천 분에 달하는 양이다. 이 방대한 영상을 50분으로 줄이는 것이 편집이다.

한 쇼트(컷)의 길이를 4-6초로 했을 때, 600여 개의 쇼트를 붙이면 50분짜리 다큐멘터리 한 편을 편집 작업이 마무리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촬영된 영상에서 필요한 장면을 찾아내고, 이야기에 맞게 순서를 잡아 붙여 나가는 일은 꽤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 1대1 방식으로 이뤄졌던 편집 작업은 언리니어(비선형) 방식으로 발전했다. 프리미어나 파이널컷 등이 등장하면서 화질 손실 없이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졌다. 편집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편집 작업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었고, 제작자들은 날을 새기 일쑤였다.

날이 밝아오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일 때쯤이면,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거지?' 하는 후회와 함께 'PD는 피포를 싸는 직업'이라 했던 조연의 의미를 실감하곤 했다. '필요한 영상을 골라주고, 원하는 위치

에 붙여주는 이는 없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

OpenAI가 공개한 Sora(소라)는 텍스트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어내는 도구다. Sora가 만들어 낸 1분짜리 짧은 영상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비슷한 기술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Sora가 만들어 낸 영상은 달랐다. 매우 사실적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생동감 넘쳤다.

전문가들은 "정말 인상적이면서 무섭다"라고 평가하며, "방법에 가까운 능력은 콘텐츠 제작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라며 흥분했다. Sora 기술의 활용성이 기대되면서(키네마스터와 같은)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공급사의 주가가 날뛰기하기도 했다.

영상 제작자들은 '폭망' 반 '기대' 반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Sora가 인간을 대신하면 시간은 절약되고 제작은 쉬워지겠지만, 동시에 일자리 상실이라는 현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나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AI 기술은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을 뒤엎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Sora에 던진 프롬프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일리시 한 여성이 따뜻하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애니메이션 도시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재킷, 빨간색 긴 드레스, 검은색 부츠를 신고 검은색 지갑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거리는 축축하고, 반사되어 화려한 조명의 거울 효과를 만듭니다. 많은 보행자가 걸어 다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충격적인 영상을 만들어 낸 프롬프트는 5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하다. 문장은 내용이 깊이, 구성에서 특별하지 않고, 또 전문가와 일반인의 영역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그러함에도 생성된 영상은 실제 촬영한 영상에 비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누구나 영화 제작자가 될 수 있고 다큐멘터리 감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들어갔던 엄청난 비용도 대규모 인력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필요한 것은 창의적인 사고와 스토리텔링, 영화처럼 멋진 장면을 구현할 수 있는 영감이다.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다. Sora는 앞으로 더 긴 형식의 영상을 생성할 것이다. 또 영상의 주인공이나 배경을 바꿔주고, 촬영에서 빠진 부분을 만들어주기도 할 것이다. 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붙여주는 편집 작업을 대신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 그려왔던 미래가 현재가 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미래사회는 지시하는 사람과 그 지시를 이행하는 AI, 그리고 로봇만이 존재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가진 오랜 경험을 어떻게 지시에 활용할 것이냐의 답을 찾는다면 Sora의 등장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치칼럼

초하드렛날의 풀뿌리 민주주의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

지난 3월10일은 음력으로 2월1일 초하드렛날이었다. 흔히 '콩 볶아먹는 날'이라고도 하고,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초하드렛날은 전통 세시풍속의 하나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돼 농사일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날은 매우 중요한 의례 행사가 마을마다 행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을총회이다.

음력 2월1일은 민속 명절인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쇠고, 절기로는 입춘과 우수를 지나 봄기운이 뚜렷한 경칩과 춘분 무렵에 자리해, 온 누리에 새 기운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날이다. 정월 초하루 설날에 차례를 모시고, 세배를 드리며 조상님을 찾아 성묘를 올리는 것은 선조에 대한 은혜와 집안의 번성, 가족 간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씨족문화의 관습이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물, 부럼을 나눠 먹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성스레 당산제, 동제를 모시고, 당산 곳으로 새해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온마을 집집을 돌며 지신밟기 굿과 고싸움놀이,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로 흥을 돋우고, 악귀를 쫓는 의식을 치러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다. 설이 가족공동체의 유대 의식이라면, 정월대보름에서 정월 그믐날까지는 마을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연대의 시간이다. 그리고 2월 초하루, 초하드렛날을 맞이한다.

통일신라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유지됐지만, 중앙정부의 지방 통치력은 주로 군·현까지 미쳤으며, 면과 동·리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자율적 자치공간이었다. 그래서 동·리의 마을들은 동계, 상부계, 향약 등 자치적 규범과 상호신뢰의 규약으로 마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합과 상부상조의 윤리를 이어 왔다. 초하드렛날 모든 동리민은 마을마당에 모여 마을총회, 대중공사(大衆公祀)를 열어, 1년 농사의 풍상, 머슴의 연봉, 수리시설의 관리, 동·리장의 선임, 당산제와 마을공동시설의 관리 비용 분담 등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규칙과 책임을 민주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시행했다.

이러한 마을총회의 전통은 자율적 자치적 마을공동체의 공론장으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주민총회로 되살아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는 마을자치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매년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

의제를 결정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며, 마을축제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를 마을에서부터 실천해 가고자 한다.

마을공론장에서 결정한 마을사업과 프로그램들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민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웃 간 대화와 소통, 속의 확대는 차이와 소외, 갈등과 혐오가 심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치유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 변동(2024)」에서 한국에서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퇴행은 공적 논쟁으로 합리화하는 힘이 쇠퇴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모든 권력이 출발하는 주민 사이에 토의의 정치가 확고하게 발을 딛어야만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한다. 토의의 공론장이 마을광장에 자유롭게 펼쳐져, 주민들이 자신과 이웃,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담론과 계획을 거침없이 논쟁하는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이 커간다.

초하드렛날 마을 공론장의 전통은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고 시대에 맞게 변용해야 하는 마을자치의 현대적 자산이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마을을 지켜내고 주민들을 살려낸 힘은 나라와 관청보다 이웃과 이웃의 도움과 배려, 마을 스스로의 자생력과 회복력이었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다.

독자투고

생활편의 문자 이용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법



"난 절대 속지 않는다."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가 지속적인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은 그 누구도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공통된 얘기는 지인들의 경조사 내용을 보고 아무생각없이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60대 남성이 택배 수신주소가 잘못됐다는 정정요구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스마트 뱅킹을 통해 수억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으

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고액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기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에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노인들은 더욱 피해에 노출돼 있다.

스미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 지인들의 경조사안내, 사은쿠폰, 택배 수령 등 일상적인 생활편의 문자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인들을 사칭한 경조사 같은 스미싱 문자는 더욱더 범심해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만일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 해야 한다. 또한 계좌지급 정지 요청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을 해야한다. 스미싱 사기에 절대 안전한 사람은 없다. 생활편의나 지인을 가장한 문자가 오면 절대 누르지 말고 전화로 확인하는 등 한번 더 살펴보고 대처해야 한다.

<양동용·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남만큼 현안 많은 광주서도 실질 민생토론회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윤 대통령은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꼽으며 영암-광주 47km 구간에 약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헨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했다. 또한 내륙인 전북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구상을 밝혔다. 전남 권속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추진 의지도 나타났다. 전남의 여러 현안에 대한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제는 광주의 차례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전국을 투어하고 계시는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달여 전 오창한 토론회가 전남에서 먼저 열렸지만, 광주에서도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희망했다. 전남도와 공동 행사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호남권에서 처음 전남에서 마련됐다. 강 시장은 아당의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가 널리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이라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민생토론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숙고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힘을 실었다.

지역의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다. 윤 대통령 역시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에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강 시장이 언급한 대로 인공지능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군공항 이전,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복합쇼핑몰 건설에 따른 기반 시설 구축 등 한풀이 아니다. 광주의 의제를 폭넓게 다루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강 시장도 그렇고 시민들도 원하는 일이다. 여의치 않다면 국회의원 선거이후라도 상관없다. 광주시도 더욱더 촘촘히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민생토론회를 건의한다. 광주에서도 조만간 마련되길 바란다.

통합돌봄 도시 광주 한부모가족 복지 사각 없어야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광주지역에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부자(父子) 가족, 이른바 '싱글 대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무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지역 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9천339가구에 이른다. 이중 모자가구는 7천411가구, 부자가구는 1천928가구, 조손가구는 87가구가며 청소년 모자가구 64가구, 청소년 부자가구 47가구다. 모자가구에 비하면는 못되니 부자가구는 2천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에는 모두 6곳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출산지원시설 1곳으로 29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양육지원시설은 3곳으로 23세대가, 생활지원시설은 2곳으로 32세대가 머무를 수 있다. 현재의 산술적인 수치라면 생계 유지 및 자녀 돌봄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부자 한부모가족은 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입소 신청이 있더라도 모자만 가능해 돌아서야 한다.

광주는 통합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광범·안전한 일상을 보듬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기존 제도권과 연계해 의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등 7대 분야에서 틈새를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보편정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광주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부자가족이 이용할 시설이 없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라 한다면 선제적으로 맞춤형 시설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와 생활권 등 대체로 선호하는 지역에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또한 시설 수용이 아니라도 더욱 폭넓게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찬가지다.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춰 한부모가족 등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사책을 통해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 데 정성을 들여야 하겠다.

아침물어는 詩

택호

손영희



대구서 온 그녀를 사과덕이라 부르네
센스가 만점인 정자리 어르신들
건너대 뒷골목 모두 착한 사마리아인

청주서 온 나는 무심천택으로 불렸으면
물 흐르는 소리로 나중까지 흐르고 흘러
아이고 무심천택이 그만,
나 물결에 휩쓸리겠네

(시집 '세상의 두근거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시인동네, 2024)

[시의 눈]

우리 동네는 청수원(淸水院)입니다. 먼 친척인 누나는 화순으로 시집가 청수택으로 불리다가 그 집에 물길러오는 아낙들로부터 그만 우물택으로 불렸다 해요. 한 이웃 마을의 종매쟁이를 따라 아버지는 문평 정에서 어머니를 만났지요. 함평 토박이인 아버지 함평 양반을 버리고 문평 양반이란 택호를 얻었습니다. 수인사가 끝나고 오일장 귀틀이 끝까지 가게를 기우겨렸는지요. 하지만 고된 배를 옮겨주고 더 배고픈 어머니를 그냥 보내고 왔다고 해요. 사실 어머니가 사시던 곳은 들만이 넓었습니다. 그해 흉년 때도 죽은 먹고 살았대요. 우리보다 더 나은 동네였거든요. '문평택, 문평양집, 문평동성'이라 부르는 아주머니들이 우리집을 노상 들고갔지요. 어머니 동네는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릴까 피드리는 문평(文平), 하지만 시집과 고생이 말이 아니었지요. '아이고 문평택이란 택호는 그만 불리요. 알랑한 글만 읽다 고치지는 배를 더 옮기기도 힘드요' 이 시와 더불어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립니다. 이제야 옛 시절을 떠올린 소설머리 없는 난 택호는커녕 그 고향마저도 잊었습니다. 손영희 시인은 충북 청주에서 출생해 2009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시조집 '불룩한 의자'(2009), '소금 박물관'(2015)을 펴냈습니다. 그는 쓸모와 효용을 벗어난 주변화된 존재들에 주목하여 거기 스며든 희미한 두근거림을 찾아가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650-2060 | 광고문의 650-2099 | FAX |
| 정치부 650-2030 | 사 진 부 650-2080 | 마케팅본부 650-2070 | 광고국 650-2016 |
| 경제부 650-2050 | 논 설 실 650-2006 | 경영지원국 650-2011 | 편집국 650-2017 |
| 사회부 650-2040 | T V 본 부 650-2009 | 사업본부 650-2007 | 입부국 650-2019 |
| 문체부 650-2065 | 서울지사(02) 786-9488 | 업 두 국 650-2020 |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